

#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자취... 12

## 청계상가 근로복지위원회에서 산업보건센터로

우리나라에서 산업보건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벌써 3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못해서 새롭게 산업보건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가끔 보게된다. 필자가 이에 대한 글을 좀 써보고자 하는것은 몇사람들의 권유가 있었고 또 지역에 의존해야 하기때문에 기억이 사라지기전에 아는대로 기술해 보고자 하는것이여 후에도 정리 작업을 하는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물론 뚜렷한 기록이 없기때문에 필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추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릇되게 전달될 위험도 있어서 양서려점지만 쓰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것 같아 시작하였다. 글을 써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나가고자 하니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 광 목

대한산업보건협회가 1964년 7월 보건사회부로 부터 설립허가를 얻은후 2년 뒤인 1966년 3월 제주도를 제외한 각 특별시와 도에 10개의 지부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산업보건을 이끌어오던 여러분들의 숙원이었고 또 산업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인 요청이기도 하였다.

이 지부를 결성한 후에는 산업보건사업을 직접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당시 산업장이 가장 밀집되어 있었던 서울의 영등포지구와 인천지구의 사업장 근로자에게 산업보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968년 5월 1일에 영등포시장 로타리 근처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속 영등포산업보건센터가 설립되었다. 이때 이 센터의 운영은 가톨릭의대 산업의학연구소의 인원과 기술의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연구용역사업을 위주로 시작되었다.

초창기에 가장 어려웠던 일은 차량문제였다. 이때만 해도 협회가 가톨릭산업의학연구소나 차량을 갖고 있지 않은 때인지라 사업장의 작업환경조사나 기타 보건관리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할 때면 택시를 이용하였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려웠었다. 사업장에 갈때는 산업의학연구소가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택시를 잡을 수가 있었으나 조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공장지대여서 택시가 들어오는 일이 드물어 모

든 장비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큰 길가까지 걸어나와서 택시를 잡거나 했는데 그나마 택시도 없을 때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곤 하였다. 혹시 사업주측에서 차량을 앞선해주는 경우 무슨 구세주나 만난것 같이 반가웠었다. 더욱이 돌아오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같을 때는 많은 짐을 들고 시내버스를 탈때 버스차장의 눈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아무리 초창기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라 하더라도 작업환경조사팀이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하였었다는 일은 요즘 사람들로서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으리라 본다. 사실 당시에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러한 일은 현장에 나가보지 않은 윗분들이 탁상에 앉아 생각하는 일이 현실과 얼마나 다른가를 말해주는 일 중의 하나이다. 윗분들에게 차량지원을 요청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하였다.

“왜 차량없이 일을 못하는가. 짐 좀 들고 걷고 버스타는 일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가” 라는 것이었다. 사실 짐 좀 들고 걷고 버스타는 일이란 통속적인 뜻에서는 그리 어려울 것이 없다. 다만 윗분들이 작업환경측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 일이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치 못한 것이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제로 하여 본 사람은 곧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루 종일 열악한 환경조건속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있거나 걸어야 하는 일이어서 환경측정을 끝내고 짐을 챙기고 나면 한꺼번에 피로가 몰려오는 그러한

일인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서나마 휴식을 취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이 하루만의 일이라면 좀 견딜수도 있을 것이나 매일 반복되는 경우 정말 힘겨운 일인 것이다. 이 별일같지 않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탁상공론이 얼마나 큰 시행착오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사업활동이 탁상공론적인 경향이 있기에 부언해 두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장에서 산업보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왜 산업보건활동이 사업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지 하는 세태의 흐름을 알려면 현장경험이 있어야 한다. 탁상에 앉아서 머리만 가지고 교과서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무리 그럴듯한 안을 짜보아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인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며 이런 성향이 우리를 고집스럽게 하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각지부 부속 산업보건센터가 설립된 과정을 설명하려다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흘렀다.

위에서 말한 차량관계와 또 다른 계기로 필자는 영등포 산업보건센터에서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이 또 다른 계기란 이러한 글에 실리기에 너무 속스러워 생략하기로 한다.

지금과 같이 많은 산업보건센터를 설치하게 된 데에는 뜻하지 않았던 동기가 있었다. 1971년 청계상가 피복공장의 노동조합원이었던 전태일씨의 분신자살이 그 계기가 되었다. 이 전태일사건은 지금도 자주 지상에 보도가 되어 널리 알려진 일이므로 여기에서 상세히 말하지는 않겠다. 당시 청계시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이 그를 분신자살케 하였다. 그 내용이 메스컴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자 큰 사회문제가 되었고 정부에서 수습에 나섰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그래서 당시 노동청의 주관아래 현장조사를 나가 실태조사를 하고 그 수습책의 하나로 영세기업의 영세근로자들에게 의료혜택을 통해 도움을 주자고 하여 노동청의 출자로 「청계상가 근

로복지의원」이라는 명칭으로 무료의료기관을 개원하게 되었고 그 운영을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맡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청계상가라는 곳은 의류의 도소매상가로만 일반에게 알려졌었고 필자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규모의 영세한 피복제조업체가 입주하고 있었는데 기업체라고 하지만 가내공업적이었고 그래서 전혀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는 고려되지 아니한채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어서 작업환경은 말이 아니었다. 당시 입주업체의 수는 확실히 파악되어 있지 않았으나 약 450여개였다고 생각되며, 약 7,000여명의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었다. 그나마 정부에서 수습에 적극성을 띤 이유는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그해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었던 것과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청계상가의 근로복지의원이 설립된 것은 평화상가의 4층이었다고 생각된다. 규모를 확실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집수실, 진찰실, X-ray실, 임상병리실 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노동부에서 주어진 설립보조금은 이 의원의 임대료, X-ray 촬영기 1대, 진찰대, 소독기, 신장계, 체중계, 시력계, 청력계 등 간단한 진료기구비와 의약품비, 그리고 인건비로는 의사 1명, 간호사와 병리기사 각 1명씩의 인건비였다. 이 중에서 인건비만은 계속 지원되었지만 운영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맡았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그의 이름은 잊었지만 아주 열성을 가진 헌신적인 간호사가 있어서 어려운 중에도 명맥이 이어졌고 적으나마 근로자에게는 위안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무료진료라고는 하나 약값의 원가는 근로자부담이었다. 이 이야기로서 알 수 있듯이 근로복지의원 또한 영세의원으로서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

이 의원이 개설되던 날 TV, 라디오와 각 언론기관 등이 총동원되었었고 그야말로 큰 소리 내며 성대한 개원식을 가졌었다. 그리고 이 복지원은 상가근로자들에 대한 진료이외에 정기건강진단과 건강상담을 하기로 하였고 이 의원

에서 처치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는 당시 종합 병원의 의무사항이었던 영세민 진료제도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후에 명동에 있던 성모병원 부속 자선진료소가 가끔 협조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원래 의도하였던 바처럼 효과적인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근로복지위원의 내용이 빈약해서 근로자의 이용률이 높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인근에 있는 메디칼센터를 이용할 수 있기를 원했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이 아파트식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약 85%가 여성근로자였고 이 중에서도 17세 미만인 근로자가 31%, 18~19세가 29% 였으며 전체근로자의 90%가 24세 이하이었다. 그들의 학력을 보면 65.3%가 국졸이었는데 지금과 비교하여 보면 당시의 교육정도가 얼마나 낮았는지 알 수 있다.

작업장이라야 대부분이 1층을 2층으로 개조한 상태여서 모두 다락방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 또 복도에는 다름질을 위한 Steam을 얻기 위해서 각 업소마다 연탄화로가 굴뚝없이 놓여져 있는 데에다 창문까지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업장이 어둡고 환기도 불량한 상태로서 작업환경은 정말 말도 아니었다. 또 1일 작업시간도 10~1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분실자살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모든 산업보건 관계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정부의 정책은 규탄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 청계시장상가 근로복지위원이 설립된지 1개월가량 뒤에 대한산업보건협회로서는 뜻하지 않았던 일이 굴러 떨어졌다. 이때 대한산업보건협회와 가톨릭산업의학연구소에서 진행하던 노동청으로 부터의 용역연구사업이 완료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협회회장과 부회장이 노동청장에게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노동청으로 갔었다. 그런데 두분이 가시고 얼마 안있다가 급히 돌아오셔서 모든 연구소와 협회직원을 모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동청에 갔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브리핑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면서 급히 어떤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다른 아닌 안양, 시흥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각 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로복지위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계획서이다. 이때 서둘러 선정할 지역이 시흥지역,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이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정부의 본래 의도는 영세근로자를 위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그해에 있게 될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홍보사업이었다. 특히 이때 정부여당에서 강력히 믿고 있었던 지역중의 하나가 노량진구였는데 그래서 노량진구에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노량진은 공장지역이 아니어서 명분이 서지 않자 인근 공장지역인 시흥안양지역을 택하게 되었다. 이 안양지역 복지위원의 개원은 널리 매스컴을 타게 되었고, 개원식에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노량진선거구의 여당후보가 주빈이 되어 테이블을 꿰었다. 필자가 모든 복지위원의 개원식에 참석하였으나 이곳만은 참석하지 않았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었다. 그후 이 복지위원이 영등포산업보건센터로 통합되어 없어지게 되었는데 그당시 청소를 끝낸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물론 근로자를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위원이 폐쇄되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필자의 마음보다 그리 너그럽지 않았었던 것 같다.

이 근로복지위원도 청계시장상가의 경우와 같이 X-ray 촬영기를 비롯한 기본적인 의료장비와 건물임대료 그리고 의사, 간호사, 기사들의 임금 등을 노동청에서 보조하고 운영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관장하기로 하고 1971년 4월중에 각 지역에서 개원식을 가졌으며, 이 의원들은 노동부의 보조가 끊어졌을 때 자립운영이 가능한 지역만 남게 되었고 그 이외는 폐쇄되었다가 근래에 와서 다시 문을 열기도 하였다. 어찌되었던 현재의 각지부의 산업보건센터의 모체는 근로복지위원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고 전태일 씨의 분실자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1년후인 1972년 4월에 마산수출자유지역내 근로복지위원이 설립되었는데 이 의원의 설립에 관해서는 다음으로 미룬다.